

# 금호터미널 분리매각 신세계·롯데 '희비'

신세계 "적극 환영... 새로운 비전 제시하겠다"  
롯데 "원하는 분위기 아니다... 인수 의지 꺾여"

대한통운과 금호터미널을 분리매각하기로 가닥이 잡히면서 유통 라이벌인 신세계와 롯데의 희비가 갈리게 됐다.

11일 금융권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 매각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은 이날 매각주간사 등과 회의를 열고 금호터미널을 분리매각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되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은 매각대상 지분

37.6% 가운데 각각 18.62%와 18.98%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 매각주간사 중 한 곳인 노루라증권은 오는 12일께 금호터미널 분리매각안과 함께 평가를 밟힐 계획이다.

매각주간사는 또 오는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자체했던 매각절차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분리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금호터미널에 옥심을 냈던 롯데와 입주업체인 광주신세계는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아직 매각주간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받지 않았다"면서도 "분리매각설은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롯데는 처음부터 대한통운과 계열사의 일괄매각을 원칙으로 했다"며 "매각주간사의 입장이 확실히 정해지면 분리매각을 위한 입

찰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대한통운 인수는 그룹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 분리매각에 대해 정확히 뭐라 설명할 수 없다"며 "내년 대한통운과 금호터미널 모두 가치가 충분한 기업이라 분리매각이 확정된다면 인수 의지가 크게 꺾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신세계는 금호터미널 분리매각에 반대했다.

신세계의 광주 지역 독립법인인 광주신세계는 금호터미널 소유인 광주유스퀘어에 입주해 있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는 금호터미널과의 임대계약이 2015년까지로, 유통업계의 경쟁사인 롯데가 대한통운과 금호터

## 금호타이어 주식 전량 매각

금호석유화학,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완전 결별

금호석유화학이 금호타이어 주식 전량을 매각키로 해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완전한 결별을 예고했다.

금호석유화학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이던 금호타이어 주식 138만8794주를 256억9268만9000원에 처분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중 보호예수가

걸려있지 않은 33만1194주를 이날부터 매각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업

어음(CP)의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105만7600주는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4일 이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식 처분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분리경영의 일환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주식 처분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자분 매각 의사 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는 선전에서 세우신 회사여서 애정이 있다"면서도 "석유화학 부문의 경영성장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전량을 팔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타이어 주식을 전량 매각함으로써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분리 진도를 높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의 금호타이어와 출자 구조를 끊음으로써 완전한 결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호남권 R&D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내일 전남대서... 47개사 201명 뽑아

호남권 연구개발(R&D) 우수 기업 채용박람회가 13일 전남대에서 열린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는 11일 광주·전남·전북지역 R&D 기업의 우수 인력 채용 및 지원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3일 오후 1시부터 전남대에서 R&D 기업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박람회에는 산업단지공단이 R&D 실적 우수업체 47개 기업이 참여하며, 인사담당자들의 현장 면접 등을 통해 201명을 채용할 계획

이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자의 이력사항을 사전에 받아 인사담당자가 검토하는 사전매칭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박람회 이후에도 1개월동안 1대 1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현장에서 채용하지 못한 기업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구직자들의 사후 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박람회 참가 기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rndko-re.aincruit.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와인 들고 살사댄스

10일 오후 역삼동 턴비에서 제10회 로스 앤 DJ 자선 살사 파티가 열렸다. 이번 파티는 대한민국의 살사댄스 마니아가 한데 모여 살사 댄스를 즐기고 침가비 전 액을 주사랑 공동체의 중증장애인 아동들에게 기부하는 행사다. 전문 댄서들로 이 살사 파티를 대표하는 와인 '프레시넷 코돈 니그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식품업계 '1조 클럽' 15개社

작년에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식품기업은 15개사로 전년에 비해 1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1일 밝힌 '2010년 식품산업주요지표'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식품기업(담배 회사 제외) 가운데 매출 1위는 CJ 제일제당(주)으로 매출액이 3조 9627억원에 달했다.

이어 주농심(1조8952억원), 주삼

양사(1조6655억원), 동서식품(1조4218억원), 롯데제과(1조4165억원) 등이 2~5위를 차지했다.

또 CJ동원 F&B(15위)가 작년에 1조201억원의 매출을 내며 처음으로 '1조클럽'에 가입했다. 식품업계 '1조클럽'은 지난 2008년 10개, 2009년 14개, 2010년 15개로 늘었다. 30대 식품기업의 작년 매출액은 31조3000억원으로 전년

## 1위는 CJ제일제당 동원 F&B 첫 가입

29조1000억보다 2조2000억원(7.6%) 늘어났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을 기준(2010년 통계는 아직 안나옴)으로 국내 음식료제 조업체 수는 4169개로 2000년의 3431개보다 21.5% 증가했고,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는 16만7000명으로 2000년의 15만8000명보다 5.8% 늘어났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취업자 줄고 고용률 하락

### 호남통계청 4월 동향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고용률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의 취업자는 37만9000명이 늘었으나 전월 46만9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둔화됐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6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명(-0.4%)이 감소했다.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56.3%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4000명), 전기 운수통신금융업(2000명), 제조업(1000명) 부문에서 주로 감소했다.

반면 구직자 비율은 나타내는 실업률은 0.5%포인트 하락한 3.8%로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4000명(5.1%)이 증가했다. 이는 육아나 가사, 취업 준비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남의 취업자는 8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1000명(-1.2%) 줄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0일 오후 역삼동 턴비에서 제10회 로스 앤 DJ 자선 살사 파티가 열렸다. 이번 파

## 생산자물가지수 10개월 연속 상승

### 전월보다 0.3% 올라

소비자물가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지수가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상승폭은 전월(1.2%)보다

다 줄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승률은 6.8%로 3월(7.3%)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3월을 제외하고는 2008년 11월 7.8% 이후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이 내립세

승했다. 농림수산물 중에서는 제소류(-23.4%)의 전월 대비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축산물(-5.4%)과 과실(-0.2%)도 하락했다.

그러나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채소(-16.6%)를 제외한 곡물(18.4%), 과실(49.7%), 축산물(11.7%)은 모두 상승했다.

수산물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3.9%가 떨어졌지만, 전월보다는 3.0%가 올랐다.

공산품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1차금속제품이 전월보다 각각 1.5%, 0.1%가 내렸지만,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은 각각 3.1%, 1.8%가 올라 총 지수는 0.8% 상승했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석유제품은 23.4%, 화학제품은 17.5%, 1차금속

제품은 16.0%가 올랐다.

서비스는 금융서비스·운수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0.5%, 전월 같은 달보다는 2.3%가 올랐다.



/연합뉴스

### 현대공인중개사

####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1만원

▶ 계획관리지역(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기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 22억

▶ 계획관리지역(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 준주거지역(방화, 시유,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회장동, 강간도로변, 저하철역부근 대지 1,520㎡(460평) 3.3㎡당 300만원

▶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기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기13억5천만원

▶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월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5억8천만원

▶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 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금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

### 토지 매매

####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권리 : 9,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